정부, 광주 U대회 유치 어떤 지원 펼치나

득표 활동 대사관 등 외교 채널 총가동

내달 실사단 대통령 만남 성사될 듯
총리급 대표단 등 유치 교두보 확보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U대회) 정부 대표단장이 국무총리급으로 격상되는 등 광주시의 U대회 유치활동에 정부차원의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시함에 따라 광주시는 정부의 전폭 지원이라는 보증수표를 내세워 유치활동을 펼칠 수 있게됐다.

여기에다 각국 주재 대사관 등 외교채널을 가동해 U대회 개최지 표결에 참가하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집행위원들을 공략할 수 있는 든든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

◇**정부 어떤 지원하나**=광주시는 U대회 유치활동은 물론 개최지 결정 표결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지원을 약속받았다는 데 크게 고무돼 있다.

U대회 개최지 결정의 3대 항목은 ▲정부의 대회 개최·지원 의지 ▲도시의 스포츠 인프라 ▲숙박·교통시설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정부의 지원 의지라는 게 국제 스포츠계의 정설이다. 광주시가 지난 2013 U대회 개최권을 러시아 카잔에 넘겨준 가장 큰 요인도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대통령, 푸틴 전 대통령의 전폭 지원이었다는 데 이견이 없다.

광주시는 우선 이 대통령이 U대회 전면 지원을 선언함에 따라 FISU실사단이 광주를 방문하는 다음달 6일~9일 사이에 실사단과 대통령의 만남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대통령과의 만남 자체가 실사단에게 정부차원의 확고한 지원의지를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U대회 정부 대표단의 위상도 승격될 전망이다. 시는 이미 정부에 총리급 대표단 구성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정부 대표단은 오는 5월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2015U대회 개최지 결정을 위한 FISU총회에서 정부의 지원의지를 확인하고 지지를 당부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게된다.

시는 정부에서 총리가 나서 지원을 약속하고 대회 유치에 대한 지지를 당부할 경우 개최지 표결에 참가하는 FISU집행위원들의 표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광주시가 FISU총회에서 집행위원들을 대상으로 펼칠 최종 프레젠테이션에 이명박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 대통령이 영상메시지 제작을 수락할 경우 대통령이 직접 지원의지를 밝히는 영상을 제작, FISU총회에서 소개할 방침이다.

◇**정부 지원의 의미**=대통령이 지자체의 국제 행사 유치를 지원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U대회 개최를 통해 도시의 국제적인 브랜드와 위상을 높이겠다는 광주시의 복안에 이 대통령이 크게 공감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U대회를 광주시가 유치할 경우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민통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14일 박광태 광주시장 등이 벨기에 브뤼셀 돌체 라 울프 호텔에서 FISU(국제대학스포츠연맹) 관계자들에게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후 유치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 사진〉

특히 U대회 유치지원을 위해 총리급 정부대표단이 꾸려진다면 국제행사 유치과정에서 매우 드문 사례가 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통상 총리급 정부대표단은 월드컵, 올림픽 등 메이저 대회 유치에만 참가해왔기 때문이다.

2015 광주하계 U대회 유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지원의지를 거듭확인함으로써 경쟁도시들보다 우위에서서 유치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며 "총리급 대표단이 구성된다면 광주시의 유치활동에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18억원의 유치활동비를 광주시에 지원한 바 있다. 그동안 정부가 2011년 대구 세계육상경기대회에 5억원,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 3억원을 각각 지원한 점을 고려한다면 적지않은 금액이다.

여기에다 대회 광주 유치가 확정될 경우 스포츠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후속작업도 탄력을 받게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박람회 조직위 여수 출장소 설치 시급

모든 직원 서울 상주… 현장 업무·지역민 소통 소홀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3년가량 앞둔 가운데 박람회 준비를 총괄하는 조직위원회의 여수 출장소가 시급히 설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출범한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직원들이 모두 서울에 상주함으로써 '사업현장'의 목소리가 '현실감' 있게 조직위에 전달되지 않는 문제점이 대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여수시 등에 따르면 박람회 현장 업무와 지역민 간의 소통을 위해서 조직위 차원의 여수 출장소 설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여수시 관계자는 "오는 7월 박람회 부지 착공 등 본격적인 박람회 준비가 이뤄지는 상황인 만큼 현장의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직위 차원에서 여수에 출장소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아쿠아리움과 콘도 등 민자유치가 번번이 실패해 시민이 우려하는 상황에서 현장의 여론을 청취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라도 출장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여수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조직위원회 여수 출장소 설치 문제를 내부적으로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조직위 인원은 모두 150명. 대부분 중앙부처와 전남도, 여수시, 순천시 등에서 파견돼 있는 공무원들이다. 조직위는 내년까지 인원을 220명으로 늘리고, 박람회 이전 해인 2011년에는 총 인원을 300명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이처럼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조직위도 조만간 일부 직원들을 여수에 상주시키면서 박람회 준비를 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여수 출장소가 설치될 경우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주민 민원 해결 등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여수시와 지역민들이 출장소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직위가 최근 여수 출장소 설치 문제를 논의하고 있어 빠르면 내년께 출장소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운태(무소속·가운데), 강봉균(민주당), 이종구(한나라당), 정양석(한나라당) 의원이 25일 오전 광주 하남공단 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지역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연합뉴스

"광주에 관세·통관 기능 부여 물류 도시로"

국회 기획재정위 中企 간담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지역 중소기업들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5일 광주를 방문, 현장 실태 파악에 나섰다.

강운태 의원(무소속·광주 남구)을 단장으로 한 기재위 소속 의원 4명은 이날 광주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이승기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지역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강 의원은 간담회에서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 광주를 내륙항구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한 기업인의 건의에 대해 "부산항이나 광양항과 같이 광주에서도 관세·통관·물류 등의 서비스를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내륙항 건설을 제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지역의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운 점을 설명한 뒤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광주상의 이승기 회장은 ▲광주 R&D특구 지정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2015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지원 ▲화순~광주~나주 공동혁신도시 광역철도 건설 등 지역 현안사업 11건을 건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지역 중소기업 대표들은 ▲공사발주와 같은 대금지급 형태를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해소 ▲중소기업 시장 보호 ▲연구개발 지원 등을 요구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한-칠레 FTA 체결 이후 교역량 4배 늘어 수출 6배·수입 3배 이상 증가

우리나라와 칠레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이후 양국의 교역량이 4배 가량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2004년 4월 발효된 한·칠레 FTA의 이전 1년 간 양국 교역액은 18억5천만 달러였으나 발효 후 5년차인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교역액은 71억6천만 달러로 3.9배 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 칠레 수출은 5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6배, 대 칠레 수입은 13억 달러에서 41억 달러로 3배 이상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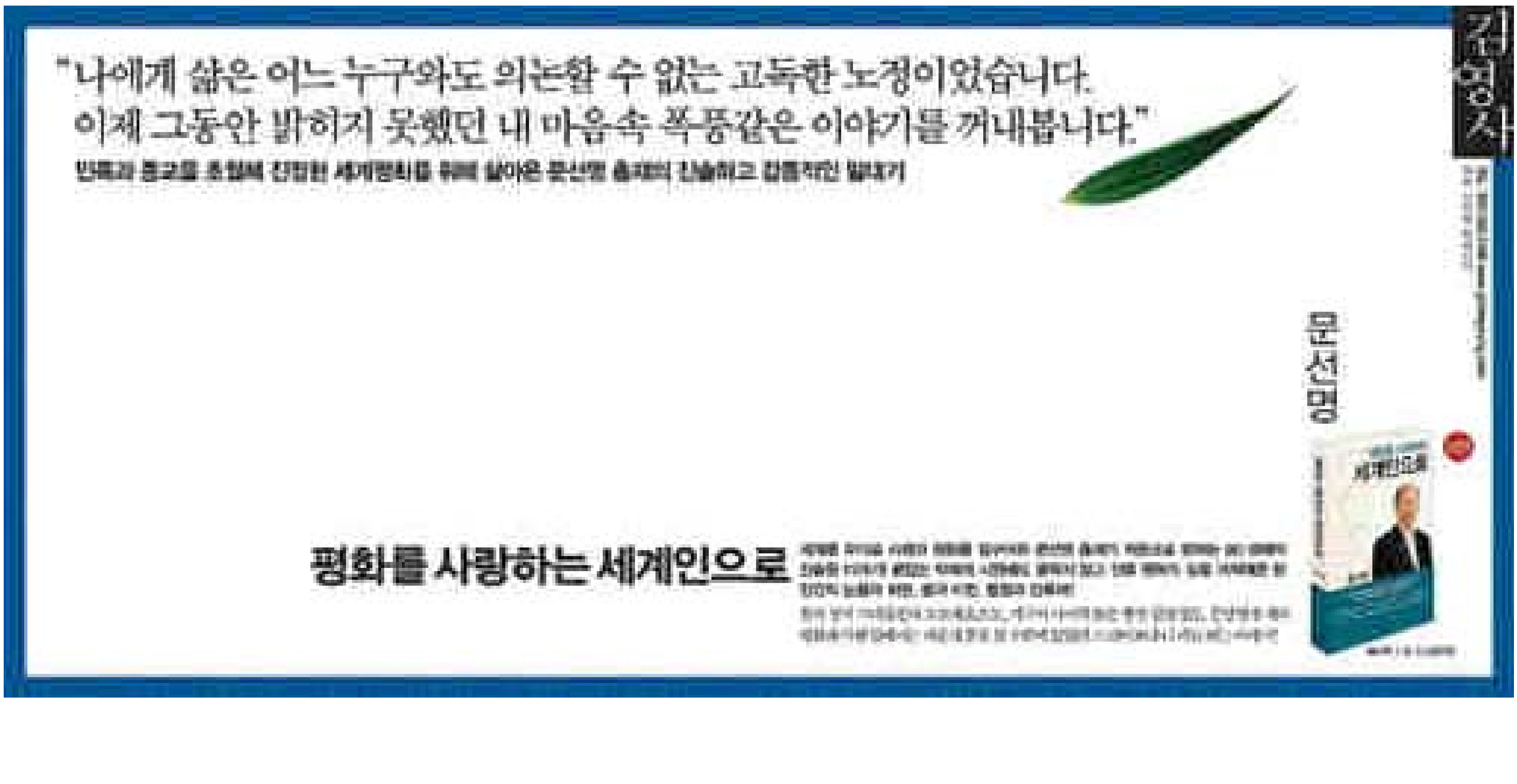
칠레에 대한 수출 증가로 칠레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은 2003년 3.1%에서 지난해 5.6%로 상승했고 국가별 순위에서도 2003년 8위에서 2008년 5위로 뛰어올랐다.

품목별로 보면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경유,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철강판, 타이어 등의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는 FTA 체결 전에는 칠레 시장에서 일본보다 점유율이 낮았으나 2007년 일본을 추월하면서 1위로 부상한 뒤 2008년에도 29.2%의 점유율로 일본(25.2%)을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대 칠레 수입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구리 관련 제품과 포도주, 포도,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이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포도주의 경우 국내 수입시장에서 칠레산 점유율이 2003년 7%에서 2008년 18%로 큰 폭 증가했지만 대부분 프랑스, 이탈리아산의 수입을 대체한 것으로 분석됐다.

돼지고기의 경우도 국내 돼지고기 사육두수는 2004년 잠깐 하락하다가 이후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산지가격은 FTA 발효 이전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외교부는 한·칠레 FTA 발효 5주년을 맞아 지식경제부·관세청·무역협회 등과 공동으로 27일 삼성동 코엑스 콘퍼런스 센터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연합뉴스